

“돌라와 야일”

❖ 사사기 10:1-5

- 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밧에 거주하면서
-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밧에 장사되었더라
-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와 야일

오늘 본문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소사사를 소개합니다. 소사사들은 이야기 분량이 많은 대사사들 사이에서 심포의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총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소사사는 사사기 3장에 나왔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잇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밧이라는 곳에 거주했고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어 사밧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갓 지파의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30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들에게 각각 나귀를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오늘날 포르쉐와 같은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소유했는데 아마도 아들들에게 각각 한 성읍씩 나눠서 다스리게 했을 것입니다. 야일은 죽어 가몬이라는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설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인물들의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일이 그런 경우입니다. 야일은 많은 자식과 부요함과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자녀와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평안과 부요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사기 기자는 돌라와 야일을 대조하면서 돌라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을, 야일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두 사사의 대조

먼저 돌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돌라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돌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때문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갈등을 봉합하고 평화를 이끌어 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1절에서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 자칭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말은 직분을 승계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령이’입니다. 종종 성경은 인물의 신분이나 성품, 행실에 따라 본명이 아닌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라가 그런 경우라면 ‘지령이’라는 돌라의 이름은 그가 미친한 신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돌라는 잇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잇사갈과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를 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잇사갈 지파인 돌라가 멀리 떨어진 에브라임에 거주했다는 것은 어떤 일로 조상에게 물려 받은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령이와 같고 나그네로 살았던 돌라를 통해 아비멜렉으로 인해 분열되고 상처 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많은 아들을 낳고 부와 권세를 누리다가 죽은 것이 야일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야일이 30명의 아들을 한 아내에게서 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30개 성읍을 소유했다는 것은 길르앗 일대를 자기 소유 삼았다는 뜻입니다. 야일은 기드온처럼 많은 아내를 얻어 길르앗 일대를 다스리며 왕처럼 군림했던 것입니다.

야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는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에는 앞장 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야일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거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특권을 누리는데만 성신했던 무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돌라라는 훌륭한 사사와, 부와 권세를 다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야일이라는 무능한 사사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돌라와 야일 둘 중 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돌라’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야일이 다스리던 2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부요함을 누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령이’라고 불리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돌라보다는, 포르쉐를 30대 쯤 끌고 다니면서 지역 유지 행세하는 야일이 더 유능해 보이지 않는가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우리 형편도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1-8을 읽겠습니다.

❖ 시편 22:1-8

- 1 내 하나님이어 내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 2 내 하나님이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 4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쭈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시편에는 사울이나 압살롬과 같은 대적들에게 일평생 시달린 다윗의 심경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돕지도 않으시고 신음 소리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습니까?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왜 나에게로는 베풀지 않으십니까? 나는 별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자’면서 저를 비웃습니다. 이 시편의 중간 부분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찢려 뼈가 드러나고, 겹옷과 속옷을 빼앗기는 수모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은 별레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자신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서 기자는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찢리셨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돌라는 다윗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렁이”라고 불린 돌라처럼 다윗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돌라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광야를 전전해야 했던 다윗과,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야일은 사울이나 로마 황제와 같은 세속적인 통치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 로마 황제가 되어 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돌라가 아니라 야일이었습니다. 야일을 섬겨야 나도 아들 30명쯤 낳을 수 있고, 포르쉐를 몰고 다니면서 건물 30개를 관리하는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읍 30개는 고사하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낮고 험한 길은 꺼리고 야일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된 목적으로 삼으며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부끄러워하여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야일이나 사울이나 로마 황제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사렛의 목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참고 삼아 다른 교회 예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본 예배 영상들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름 있는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공연 영상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간도 화려하고 시설이나 음향이 잘 갖춰져 있었고 예배인도자나 설교자들도 외모, 목소리, 말투나 손짓 하나하나가 흡사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이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처음에는 ‘야, 예배 잘 드린다’면서 감탄하며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기 싫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과의 괴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

배는 예배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런 교회 예배 영상이나 설교 영상, 찬양 영상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문적인 찬양팀의 집회 영상들도 자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래들이 좋고 인도자와 연주자들이 전문가들이라 은혜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노래인데 제가 부르면 다른 노래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확실히 최근 찬양들은 화려한 반주가 뒷받침 되어야 곡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시설과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면 훨씬 은혜가 될텐데’ 라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면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보기에도 허접한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해 주실까?’ ‘변변찮은 몇몇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라는 의문을 품는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돌라가 아닌 야일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 황제나, 재벌이나, 명망 높은 학자로 오지 않으시고 나사렛의 목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령이나 벌레와 같이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 마태복음 25:37-40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 두 편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양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살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소에 속한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끔 노숙자나 죄수로 변장해서 돌아다니신다는 뜻인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

기기 위해서는 높은 곳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뒤쳐지는 사람들,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봐야 유익할 것도, 배울 점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가까이하며 섬길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으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둘 때

로마서 12:16을 읽겠습니다.

❖ 로마서 12:16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도바울은 성도들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역행하는 권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데가 아닌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시설에서 유명 설교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다 뒤로 하시고 특별할 것 없는 이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시도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낮추셔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눈을 높인데 두게 합니다. 외국이든 강남이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아보이는 장소를 비춰줍니다. 나보다는 더 늘씬한 몸매에 도자기 같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갖지 못한 외모, 능력, 부와 명성을 가진 인물들을 부각시킴으로 그들처럼 되어야만 더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예배드릴 때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때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낮은 자리에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일이 아닌 돌라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돌라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는 삶

마태복음 24장의 양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인데 결국에 도움을 받는 쪽은 그들이 아닌 자기 자신이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었을 때, 높은 곳만 바라보았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울러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도 그와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 지체들이 못생겨서 오래 보기 힘들시지요. 그래도 외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며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화려하고 잘 꾸며진 장소나 사람에게만 심취해있지 마시고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멀리 가야 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살피면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청소나 주일학교 어린이를 섬기는 일,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로 예수님께 칭찬 받을 귀한 사역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정신 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얻게 될 칭찬과 영광을 소망하시며 더 비천하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생각해볼 질문들**

1. 타인과의 비교 때문에 스스로 비참함이나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2.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나요?
3. 낮은 곳에 마음을 두기 위해 구체적으로 힘쓸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